

|   |      |                                 |
|---|------|---------------------------------|
| 함께 배우고<br>나누는<br>행복한 학교   | 계수나무 | 발행인 : 백종철<br>교장선생님<br>편 집 : 6학년 |
| 경기도 시흥시 계수로 203 ☎ 070-7097-1973 <a href="http://gyesu-cho.es.kr">http://gyesu-cho.es.kr</a> |      |                                 |

## 티볼·피구대회가있어좋다

10월 22일(수) 1교시부터 4교시까지 3~6학년 학생들이 티볼·피구 대회를 하였다. 13일쯤부터 4개의 조로 나누어 연습도 하고, 각조 조장을 중심으로 조원들이 모여 타순과 수비 자리를 정하였다.

상품은 피자였다. 1등은 조금 싸지만 한 사람당 2조각씩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2등부터 4등은 가격이 비싼 순으로 조금씩 차이나는 피자를 한 사람당 1조각씩 돌아가게 하였다.

한껏 웃고 울고 화내며 마지막 결과를 만들어냈다. 결과는 1등은 1조가 되었고 2등은 3조, 3등은 2조 4등은 4조가 되었다. 대회를 마친 3학년 심유진 학생은 '언니 오빠들이 잘 도와주어서 좋고 모두 다 최선을 다해 주어서 좋았다'라고 하였고 4학년 우다현 학생은 '3등한 이유가 언니 오빠들 덕분인 것 같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5학년 김수겸 학생은 '우리조가 의외의 결과를 얻어서 좋다'고 말하였다. 6학년 최민서 학생은 '애들이 못해서 재미없었다'고 대답하였다. 티볼·피구 대회를 보신 교장선생님께서 '즐겁게 다 참여하고 노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앞으로 여자들이 재미없지 않게 만들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다. 아쉽기도 하고 재미있고 짜증이 나기도 한 티볼·피구대회는 학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

-유민-

## 애플데이에 사과를전하다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상담선생님이 포레 상담 도우미들의 도움을 받아 애플데이 행사를 주최하였다. 애플데이는 10월20일부터 27일까지 5,6학년을 중심으로 한 전교생이 미안했던 내용이나 고마웠던 내용을 담은 사과 모양의 카드를 쓰고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포레 상담사와 상담선생님께서 사과 모양의 카드와 함께 사과를 전달해 주었다.

학생들은 이 행사를 통해 '재미있었다.', '사과를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 '사과가 사랑스러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상담선생님께서 '준비했던 것처럼 친구들이 사과나 하고 싶은 말을 쓰면서 오해가 생겼던 부분을 해명하고 다시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친한 사람끼리 서로 주고받는 경우도 꽤 있어 조금 아쉬웠지만, 친한 사이는 우정을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면이 많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다.

-신수민, 김세인, 이채현-

## 졸업에대한생각

이제 3달만 지나면 6학년이 우리 계수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된다. 6학년들은 후배들과 함께 어울리며 사이좋게 지내왔기 때문에 2학년 아이들에게 6학년 졸업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았다. 2학년 아이들 6명에게 물어보았을 때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

이준철 : 아는 형들이 졸업하니까 아쉽다.

정운호 : 못 보니까 아쉽다.

백주영 : 졸업해서 슬프다.

김재겸 : 졸업해도 많이 놀러와 주었으면 좋겠다.

이선린 : 많이 안 놀아줘서 아쉽다.

허다희 : 너무 슬프다.

주로 '아쉽고 슬프다'는 답변을 많이 말하였다. 6학년이 졸업하고도 멋진 학생들이 되기를 바란다.

-김세민, 이준목, 한이선-

## 현장체험학습

### ❖유치원

계수병설유치원과 1, 2학년 동생들이 10월 현장체험학습으로 '쇠꼴마을' 견기를 하였다. 유치원 친구들과 체험학습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

기자: 그 곳에서 무엇을 했나요?

유치원: 땃목타기, 배 따기, 레크레이션을 했습니다.

기: 어땠나요?

유: 좋았습니다.

기: 배 따기 할 때는 어땠나요?

유: 재미있었는데, 조금 무서웠어요.

기: 또 무엇을 했나요?

유: 다듬이질과 지데메기를 했습니다.

기: 레크레이션은 어땠나요?

유: 춤추기, 기차놀이, 짹짹 놀이 등을 했고, 재미있고 좋았습니다.

유치원 동생들은 아직 어리지만 인터뷰를 할 때 매우 즐거워하며 열심히 참여를 하였다.

-류자랑, 방수연, 황정아-



#### ❖3학년

3학년은 10월 24일에 한국민속촌으로 견학을 갔다. 주제는 의식주 중에서 주에 대한 주제별 체험 학습이었다. 한국민속촌에서 줄타기공연을 보았고 민속놀이와 전통놀이를 체험했다고 한다. 그리고 집단별 가옥구조공부를 하였다고 한다. 선생님께서는 놀이공원을 갔다고 한다. 이울학생은 재미있었고 놀이시설이 기대되었고 장난감 칼을 사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해서 못 사서 아쉽다고 하였고, '친구들과 미션수행을 해서 재미있었다'고 하는 학생도 있었다. 그리고 놀이시설도 신났다고 한다. 3학년들에게 좋은 추억이 된 것 같다.

-김수민, 박지윤, 우선영-



#### ❖4학년

계수초 4학년이 25인승 버스를 타고 경기도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수원화성과 1학기 때 배웠던 지방자치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서 경기도의회로 현장체험 학습을 갔다. 경기도 의회에 갔다가 수원화성 장안문을 지나 연무대로 갔다. 그곳에서 국궁체험도 하고 화성열차도 탔다고 한다. 화성열차를 타고 화성행궁으로 갔다가 무예24기 공연을 보고 수원화성박물관을 관람한 후 현장학습을 마쳤다고 한다. 대부분 4학년 학생들이 '역사를 알게 되어서 좋긴 했지만 노는 시간이 없고 공부만해서 지루했다.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다'고 대답해 주었다.

-이유정, 김유진-



4학년 학생들이 강화도로 현장체험학습을 갔다. 강화도에서 박물관 관람과 지식묘, 고려궁지, 광성보 등 여러 곳에 가서 보고 관람을 했다. 박물관에서는 스탬프 찍기 체험과 고려와 강화도의 역사를 공부하였다고 한다. 그 다음은 공부로 지친 머리를 식혀 줄 검 옥토끼 우주센터로 가서 관람하고 3D 영화를 보았다고 한다. 대부분 4학년 학생들이 힘들기도 했지만 재미있었다고 한다.

-황정인, 정선규-





#### ✧ 5학년

11월 5일에 5학년 학생들이 백범김구박물관과 아이스링크장에 갔다. 몇몇 학생들은 박물관이 지루하다고 하였고 그 외의 다른 학생들은 김구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다고 하였다. 백범김구선생님 박물관에는 김구선생님의 생애가 전시되어 있어서 김구선생님에 대하여 조금 더 알 수 있는 곳이다.



박물관 관람 한 후 제니스아이스링크장에 갔다. 아이스링크장에서 많이 넘어지면서 스케이트를 배웠다. 스케이트를 타면서 더 많이 타고 싶었지만 다리가 아파 더 못 탔다고 한다. 5학년에게 이번 현장학습은 역사와 스케이트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기회였다.

-김민성, 최민서, 박준하-



## 제주도

6학년은 주제별 체험학습으로 제주도를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3일간 다녀왔습니다. 친구들의 기행문으로 제주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같이 알아보시죠.

#### ☐ 김수민

6학년 수학여행은 더욱 기대되었었다. 왜냐하면 5학년 때는 경주로 갔었지만 이번에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갔었기 때문이다. 공항에서는 매우 설레었다.

첫째 날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협재해수욕장에서 노는 것이었다. 와- 내가 진짜 그렇게 예쁘고 놀기에 좋은 바다는 진짜 처음 본 것 같다. 원래는 물에 옷이 젖지 않게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젖게 되었다. 바다에서 다 젖고 논 것은 나에게 정말 가끔씩 있는 일인데, 정말 재미있었던 것 같다. 모래도 진짜 부드럽고 사람도 우리 외엔 별로 없었고, 파도도 거칠지 않고, 물도 맑고, 따뜻한 햇볕도 딱 알맞게 비추어 주어서 내 상상 속에만 있을법한 그런 바다가 그대로 튀어 나온 것 같았다. 놀다보니 너무 추웠지만 좋은 경험이었다. 애들과 물을 뿌리고, 장난치고, 모래에 묻고 서로 웃으며 놀았던 것이 가장 기분 좋고 웃겼었던 것 같다.

둘째 날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사려니 숲길을 걸었던 일이다. 그곳은 양옆에 나무가 뽕뽕했는데 사진을 못 찍었다. 배경화면하기에 딱 좋았던 풍경이었는데 못 찍었던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 풍경은 진짜 멋졌지만, 완전 힘들었다. 덥고 힘든 탓에 짜증이 났을 법도 하지만, 애들이랑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서로를 웃기며 재미있게 함께 걸어갔었기에 기분이 좋았다. 애들 몇 명의 애교가 짜증이 나긴 했지만 기분이 진심으로 나쁜 것이 아니었고, 나도 그랬으니 참기로 했다. 애들이 다 엽기스러워서 마냥 힘들지만은 않았다. 또, 중간 중간에 선생님이 사진을 찍었는데 내가 모델포즈를 지어준 것도 뿌듯했다. 사람들이 우리 보고 몇 살이냐고, 어디서 왔냐고 관심을 줬던 것도 기억이 난다. 좋은 경험이 되었다. 비록 발목이 좀 심하게 아팠지만 말이다.

셋째 날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민속 자연사 박물관이었다. 다양한 것을 많이 보았다. 가끔, 징그러운 것들도 나왔다. 고래의 뼈 같은 것이었는데

데 그런 징그럽다는 특징으로 인하여 내 뇌에 가장 강하게 남은 것이다. 관람을 끝내고 단체 사진을 찍었지만 뛰고 있는 상태에서 찍는 것이어서 엽기 사진이 많이 나왔다.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너무나 아쉬웠다. 제주도는 그냥 여기와 별다를 게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이 틀렸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대로 가기 너무 아쉽고 뭔가를 더 못한 것 같았다. 아마도 반 친구들과 함께 놀러가서 그런 것 같다.

위에 세 가지 일 말고도 재미있고 좋았던 것이 많다. 숙소에서 놀았던 것도 그중 하나이다. 숙소에서 애들과 놀았던 것이 너무나 재미있고 웃겼다. 여자 애들끼리 수다도 떨고, 놀았던 것이 좋았고, 가끔 다른 애들이 몰래 들어오기도 했지만 그것도 그것의 나름대로 재미가 있기는 했다. 좀 심해지면 짜증도 났지만 말이다. 하지만 반 애들끼리 등지고, 끼리끼리 노는 것보다는 더 나왔다. 초등학교 마지막 수학여행이라 더욱 기대가 되었었고, 그 기대를 깨지 않을 만큼 재미있고 웃겼던 것 같다. 전체적으로 재미있고 웃겼고 좋았다는 긍정적인 감정이 대부분이고, 우리가 들렀던 곳들을 커서도 꼭 한 번 더 가고 싶다. 6학년 수학여행은 안 좋은 일 없이 너무나도 잘 마친 것 같다.

#### ▶ 김민준

학교 주제별 체험학습으로 제주도에 갔다. 비행기가 출발하자 좀 기분이 무서웠다. 갑자기 빨리 가서 무서웠지만 하늘로 올라가니까 파란하늘이 아름다웠다.

제주도는 유네스코의 자연과학 분야에서 삼관왕 차지한 곳이라서 기대했다. 비행기를 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주도 공항에 도착하였다. 몸이 빠근했지만 버스를 타서 좋았다. 제주국립박물관을 가는 동안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즐겁게 갔다. 제주국립박물관은 썩 재미있진 않았지만 제주 역사를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았다. 다시 버스를 타고 마방목지에 갔다. 말이 멋있는 줄 알았지만 멋지진 않고 말똥이 있어서 더러웠다. 산위라서 그런지 꽤 추웠다. 버스를 타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갔다.

아침을 일찍 먹어서 그런지 배가 많이 고파왔다. 점심메뉴는 비빔밥이었고 비빔밥에 고추장을 넣고 비비니까 엄청 맛있었다. 배를 채우고 나니 기분이 좋았다. 또 버스를 타고 협재해수욕장에 갔다. 에

메랄드 빛 푸른 바다가 눈앞에 있었다. 친구들은 물놀이를 했고 난 한울반 선생님이랑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즐겁게 사진을 찍었다. 이제 숙소로 다시 버스를 타고 갔다. 숙소에 가보니 마음에 들었고 베란다 앞에 바다가 있었다. 숙소에서 씻고 밖에 나갔더니 바다에 노을이 비추어서 와~~라는 말만 나왔다.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놀았다.

이튿날 아침을 먹고 민거나말거나 박물관에 갔다. 신기한 것도 있고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참 이상했다. 박물관 중에서는 좋았다. 점심식사는 제주도 전통음식은 아니지만 유명한 곳이라고 들었다. 황금롱빅버거는 많이 커서 4명 정도 같이 먹어야 했다. 맛이 그다지 좋지는 안았다. 배를 채우고 사려니 숲길을 갔다. 길이가 10Km나 됐다. 생각보다 엄~~~청 길었다. 웅장한 나무와 꽃들을 보니 굉장히 멋있었다. 굉장히 춥기도 했다. 그렇게 걷기가 끝났고, 저녁으로 흑돼지오겹살구이를 먹었다. 여기 고기는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었다.

셋째 날 아침에 4·3평화공원에 갔다. 제주도 사람들에게 많은 아픔이 있었다는 것이 많이 슬펐다. 그리고 너무 잔인했다. 그다음엔 산굼부리에 갔다. 역사가 엄청 많았다. 경치가 좋아서 사진도 찍었다. 이렇게 돌아보니 벌써 밥을 먹을 시간이 왔다. 삼대국수회관 고기국수 집이었다. 고기국수는 고소하고 고기랑 국수를 같이 먹으니 참 맛있었다. 배를 든든하게 채우고 용두암에 갔다. 돌로 된 용머리가 있었다. 신기했다. 이제 갈 시간이 되어서 공항으로 갔다. 거기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기념품도 샀다. 비행기를 탔다. 막상 가니 좀 아쉬웠다. 좋은 수학여행이었고 좋은 추억이 된 것 같다.

## 6학년 이웃면담활동

국어 수업으로 면담을 배웠습니다. 학생들은 모둠을 나누어 학교 주변 이웃들을 만났습니다.

☆2014년 11월 4일 6학년 이유정과 신수민이 학교 후 학교 옆에 있는 꽃집에 가서 11월 5일 2시에 면담을 하기로 약속을 잡았다.

11월 5일 오후2시, 이유정이 면담자를 맡았고 기록자는 신수민, 녹음은 박지윤, 사진촬영은 한이선이 맡아 꽃집에 계신 아주머니와 면담을 하였다.

우선 이 꽃집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물어 보자 식물판매, 관리를 하며 식물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고 하셨다. 이 일을 하신지 얼마나 되셨냐고 물어봤더니 25년 정도 되었다고 하셨다. 할머니께서 옆에서 대답해 주셨다. 혹시 그 일을 하시면서 다치시거나 위험한 일이 일어난 적이 있으신냐고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화분에 흙을 담고 큰 화분을 들다보니 허리를 많이 다치신다고 하셨다. 그렇다면 이 일의 좋은 점은 무엇이나고 물어봤더니 항상 아름다운 꽃들을 보고 꽃향기를 맡으니까 그런 점이 좋다고 하셨다. 이제 가을인데 요즘은 무슨 꽃이 잘 팔리냐고 물어봤더니, 가을이니까 국화가 잘 팔린다고 하셨다. 저희학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질문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저희 학교나 학생들에게 불편한 점이 있으신가요 라고 여쭙으더니 학교는 좋은데 입지조건이 별로인 것 같다고 하고, 또한 친구 수가 적다거나 거리상으로는 좀 불편하다고 하셨다. 저희 학교나 학생들에게 부탁하거나 바라시는 점이 있으시냐고 물어봤더니 사이좋게 지내고 일주일에 한번이든 한 달에 한번이든 학교 안 말고 학교 밖 주변을 한 번씩 돌아보면서 보이는 쓰레기는 주웠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면담을 마치며 박지윤 학생은 좋은 말씀 들었다고 하고, 신수민 학생은 좋은 말씀 들었고 바쁘신데 약속 잡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돌아왔다. 꽃집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감사하다고 하고 싶다.

이렇게 면담을 마무리 하였다. 사진촬영을 맡은 한이선은 재미있었다고 하고 나쁘지 않았다고 하였다.

✧김민성, 김유진, 이준목, 방수연은 면담을 하기 위해서 버스기사님들이 모여 있는 버스 차고지로 갔다. 그 곳에 계신 버스기사님께 면담을 요청하였다. 우리가 버스기사님을 찾아간 이유는 이 학교 근처에 사람도 많이 안 사는데 버스차고지가 있는 게 신기해서 찾아갔고 버스기사님들의 일과를 알고 싶어서였다.

기사님은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 주시고 면담을 허락해 주셨다. 하지만 기사님의 첫 인상은 굉장히 무서웠지만 면담을 하다 보니 마음씨는 정말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

라 다른학교 학생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셨다. 그 부탁은 버스를 탈 때 조용히 타고 목적지까지도 조용히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버스기사님은 버스기사를 하신지 15년이 되었다고 하셨다. 새벽4시에 출근을 하고 밤 11시에 퇴근을 하신다고 하셨다. ‘일하시면서 힘들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라고 물어 보았는데, ‘힘들어도 참고 해야지, 힘들다고 짜증내면 못하지...’라고 대답하셨다. 버스기사님에 대해 몰랐는데 이제 면담을 하고나니 버스기사님의 불편함과 일과를 알게 되어 좋았다. 버스기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힘들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버스기사님이 대단해 보였다. 면담을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싶다. 이번 면담은 우리에게 좋은 경험이 된 것 같다.

✧지난 11월 7일 금요일에 유민, 박준하, 류자랑, 우선영 학생들이 학교숙제로 학교근처에 있는 다미홍으로 면담을 하러 갔다. 면담한 분께서는 다미홍 책임자로 3년 동안 일하신 분이다. 이분께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물어봤더니 자녀분들이 대학교를 나오고 자신은 집에서 놀일 밖에 없어 이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셨다. 계수초등학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쭙어 보았더니 시흥시 인구도 원래 적고 시골에 있는 학교니까 작은학교라고 생각된다고 말씀해 주셨다. 계수초등학교나 학생들에게 불편한 점이나 부탁할 점이 있으시냐고 물어보니 없다고 말씀해 주셨다. 일을 하시면서 손님들과 어린이들이 와서 맛있게 먹는 것이 보기 좋았고, 저녁에 술을 드시고 술주정을 하시는 남자분들이 짜증나는 유형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분은 면담을 하여서 반가웠고 다음에도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우리는 이 면담에 응해주신 다미홍 책임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싶다.

✧우리는 학교 뒤 매점에 면담을 하기로 하고 먼저 약속을 잡고 금요일 3시에 면담을 하러 갔다. 거기에는 처음 보는 할아버지가 계셨다. 약속을 잡았던 아저씨와 다른 분이셨지만 우리는 면담을 하기로 했다. 먼저 할아버지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개 같은 생각을 하면 개가 되는 것이고, 돼지 같은 생각을 하면 돼지가 되는 것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인간다운 생각을 해야 하는 거다.’라고

여러 번 강조하시며 말씀하셨다. 질문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는 조금 당황하기는 했지만, 우리는 계수초등학교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첫 번째 질문을 드렸다. 할아버지께서 ‘좋지’라고 대답을 끝내신 후 말씀을 덧붙이셨는데 내용은 대략 이런 것이었다. ‘내가 저기 뒤에 포도밭을 사서 길을 터면, 계수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집을 여덟 채 정도 지으면 40세대가 편히 살 수 있을게야.’

두 번째 질문으로 저희가 살아가면서 참고하면 좋을 말씀을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생각만 하지 말고 남 생각을 하라. 남을 위하여 희생을 하고 배려를 해라, 친구를 위해 희생을 하면 그 보다 행복한 일이 없느니라.’ 질문을 더 드릴 시간이 안 되어 인사를 드리고 면담을 끝냈다.

면담이 끝난 후 김세민은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었다’라고 하였고 김수민은 ‘좋은 신 말씀 잘 들었고 참고하며 살면 좋겠다’라고 했고, 황정인 학생은 ‘좋은 말씀 들어서 재밌었고, 우리가 준비했던 질문들을 마무리 하지 못하여 아쉬웠다’라고 하였다.

✧ 11월 7일 계수감리교회 목사님과 면담을 하였다. 조원 중에 몇몇이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님과 면담을 하였다.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주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생:**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신가요?

**목사님:** 담임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 주일 말고 평일에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목:** 새벽기도나 수요일예배를 드리거나 교인 가정을 방문 합니다.

**학:** 혹시 가끔 가다가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목:** 귀로는 들리지 않지만 성경을 통해 깨닫습니다.

**학:** 무슨 계기로 목사님이 되셨나요?

**목:**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에 다니며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목사님이 되고 싶어 졌습니다.

**학:** 목사님을 하시면서 불편하시거나 힘드셨던 적이 있었습니까?

**목:** 네,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교회와 교인들을 욕할 때 인 것 같습니다.

**학:** 저희 계수초등학교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수초등학교에 입학하시고 싶은 점은 무엇인가요?

**목:** 가끔가다 시간나면 놀러오고 계수초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교에 잘 다녀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 계수초등학교 때문에 불편하신 점은 무엇인가요?

**목:** 불편한 점은 없고 학교에서 쿵광거리는 것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학:** 저희와 면담을 하시고 난 뒤 소감은?

**목:** 찾아와 이런 것을 물어보니 재미있고, 다른 때도 시간이 나면 놀러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면담후 김민준은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큰 교훈을 얻은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면담에 응해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1학년 글모음

### ■ 고수민

#### 소방안전훈련

오늘 무용에서 탈춤을 쳐서 재미있었고 무용 끝나고 소방안전훈련을 했다. 통에 불을 켜고 소화기로 껴다. 소방차에서 물이 나왔는데 멋졌다. 무지개가 떴으면 좋겠다. 재미있었다.

### ■ 유샘

#### 으뜸해엄이

오늘 온작품수업시간에 으뜸해엄이 책을 봤어요. 으뜸이가 혼자 있을 때 무섭고 외롭고 슬펐다는 걸 보니까 나도 혼자 있었던 때가 떠올랐다. 으뜸이랑 똑같은 생각이 나서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으뜸이가 앞으로는 무섭고 외롭고 슬퍼하지 않으려고 작은 물고기를 모아서 큰 물고기를 만들어 싸웠다. 대단하다.

### ■ 박소현

어제 내가 비밀친구 책상 서랍에 넣었는데 뮤지컬 연습 할 때 떨어질까 봐 걱정을 했다. 오늘 와 보니까 그대로 있었다. 다시 비밀친구 서랍에 넣었다. 내 사물함을 열었는데 선물이 있었다. 그 친구가 누군지 정말 궁금하다.

### ■ 남선우

#### 으뜸해엄이

오늘 쉬는 시간이 끝나고 온작품 수업시간에 으뜸해엄이를 읽었다. 근데 으뜸해엄이가 또 혼자가 되기 싫어서 큰 물고기를 만들었다. 으뜸해엄이가 똑

똑했다.

#### ■ 김이레

##### 비밀친구

오늘 나의 비밀친구가 나한테 초콜릿을 줬다. 친구가 줘서 더 맛있어 보였다. 내 비밀친구가 누군지 궁금하다.

#### ■ 정준교

##### 소방안전훈련

오늘 2교시에 소방안전훈련을 했다. 거기에서 4,5,6학년이 했다. 나도 거기서 해보고 싶었다. 그런데 선생님이 가위바위보를 하라고 그랬다. 그런데 내가 이겨서 소화기를 썼다. 재미있었다.

#### ■ 이영준

##### 고구마캐기

어제 고구마를 캐다.  
나랑 유샘과 하니까 일등으로 큰 고구마를 캐서 재미있고 좋았다. 또 하고 싶다.

#### ■ 신유정

##### 땅콩체험

오늘 땅콩체험을 했다. 아빠가 좋아하는 땅콩을 수확해서 기분이 좋다. 교감선생님이 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고맙다.

#### ■ 이하민

오늘 놀이터에서 놀았다. 킨더초콜릿을 먹었다. 우유가 들어있다.

#### ■ 이운호

##### 재미있는 날

오늘 소방안전훈련을 했다. 소방차를 타고 싶었다. 못해서 아쉬웠다. 무용수업에서 탈춤놀이를 해서 재미있었다. 오늘 재미있는 놀이를 배워서 재미있었다. 하민이랑 행동을 해서 재미있었다.

#### ■ 전무현

##### 으뜸헤엄이

오늘 으뜸 헤엄이를 봤어요. 으뜸헤엄이가 큰 물고기한테서 도망쳐서 멋졌고 용감했어요. 근데 으뜸

헤엄이가 혼자만 남아서 외롭고 쓸쓸했을 것 같다.

#### ■ 이재건

##### 지킴이 선생님 만난 거

금요일에 동생이 발표해서 대야도서관에 갔다. 거기에서 지킴이 선생님을 보았다. 깜짝 놀랐다.

#### ■ 김대현

##### 비밀친구

오늘 비밀친구한테 선물 주기를 했다. 타이밍을 맞춰 선물을 넣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열심히 선물을 줄거다. 재미있었다.

## 2학년 글모음

#### ■ 김재겸

##### 찜질방

오늘 찜질방에 갔다. 할머니랑 형이랑 나랑 먼저 황토불가마에 갔다. 찜질을 20분 동안 하고 나왔다. 더운 곳에 있다 나오니 기분이 무척 상쾌했다. 놀다가 새끼 개미를 봤다. 그 개미가 아이스방에 들어갔다. 나도 따라 들어갔다가 개미를 놔두고 나왔다. 할머니가 식혜와 달걀을 사주셨다. 달걀에 소금을 너무 많이 뿌려서 소금을 털어서 먹었다. 맛있다. 찜질을 마치고 갈 때 아이스방에 있는 개미가 나왔다 물 것 같아서 빨리 집으로 갔다.

#### ■ 최문석

##### 가학산 간 날

가학산에 가서 윤오랑 같이 동굴에 들어갔다. 그런데 조금 어두웠다. 위에 어떤 구멍이 있었다. 박쥐굴 같았다. 엄마 폰으로 굴을 찍었다. 동굴에서 나가고 체험을 하였다. 체험 중에서 헬멧을 만들었다. 헬멧 만들기 체험이 가장 재미있었다. 헬멧 만들기 체험에서 꾸미는 것도 재미있었다. 돌 만들기 체험이 있었는데 못했다. 아쉬웠다.

#### ■ 최주석

##### 딱따구리

나는 우리 반 친구들과 엄마들이랑 휴양림에 갔다. 이유 엄마 차를 타고 갔는데 어지러웠다. 1시간20분 후에 도착했다. 우리가 잘 집은 지난번에



갔던 곳이라 약간 실망했다. 윤오 이모가 코스모스랑 같이 사진을 찍어오면 맛있는 걸 준다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엄마랑 같이 찍으러 갔다. 사진을 찍고 내려오는데 딱딱 소리가 나서 주의를 둘러보았다. 그런데 숲속에 딱따구리가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 보았다.

## ■ 이유

### 작은 운동회

오늘 1, 2, 학년이랑 작은 운동회를 했다. 선생님은 일찍 준비를 하고 있다. 나는 겨울팀이었다. 겨울팀은 윤오, 나, 유생, 이하민, 유정이었다. 이어달리기를 했다. 윤오가 먼저하고 나는 꼴찌였다. 달팽이 놀이를 했다. 가을팀은 안에서 달리고 우리팀은 밖에서 달렸다. 너무 아쉬웠다. 그래도 너무 재미있었다. 닭싸움을 했다. 재미있다. 피구는 봄, 여름이 팀이고, 가을, 겨울이 팀이었다. 우리팀이 이길 뻔했다. 발야구를 했다. 주영이가 소리 질러서 싫었다. 선물 받았다. 재미있었다.

## ■ 정윤오

### 가을 운동회

오늘 가을 운동회를 하였다. 먼저 달리기를 했다. 한번은 지고 한번은 이겼다. 그 다음은 달팽이는 주영이네가 이겼다. 그래서 나는 너무 짜증이 났다. 닭싸움은 3대3이 되었다. 한판 더 해서 우리가 졌다. 근데 애들이 반칙을 쓴 것 같았다. 그리고 피구를 했다. 거기에서는 상대가 2점을 내서 주영이는 많이 짜증이 났고 많이 화를 내고 울려고도 하였다. 그래도 울지는 않았고, 다음은 발야구를 하였다. 발야구에서는 애들이 2점밖에 못 내서 우리가 이겼다. 그래도 주영이는 선수가 베이스를 안 밟았는데 1점을 주어서 선생님한테 화를 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밀가루 사탕 먹기 달리기를 했다. 그런데 가을팀에 주영이가 있어서 주영이가 너무 빨라서 우리가 3등을 하였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선물을 주고 일기를 썼다. 재미있었다.

## 4학년 글모음

### 수원화성을 다녀와서

이정훈

|         | 기억에 남는 활동 | 활동에 대한 생각 및 느낌  |
|---------|-----------|---|
| 1       | 국궁 체험     | 활을 멀리 쏘는 것은 힘이 아주 많이 필요했다. 내가 쏜 것은 아주 잘 날아가서 좋았다. 그리고 잘 맞아서 좋았다.  |
| 2       | 화성 열차     | 편하고 경치를 잘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좋았다.   |
| 3       | 경기도 의회    | 가장 재미있던 것은 퀴즈를 2문제나 맞췄는데 마지막에 답을 알았는데 답을 알려줘서 답을 못 맞춰서 아쉽다.   |
| 전체적인 느낌 |           | 경기도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경기도청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았고 수원화성에 있는 성이 왜 만들어졌는지도 알았고 무엇을 이용해서 만들었는지도 알아서 좋았다. 오전에는 배고팠다. 국궁체험도 아주 재미있었다. 그리고 화성열차에서 사진을 많이 찍어서 좋다. 그리고 버스에서 영화를 끝까지 못 봐서 아쉽다. |

## 술래잡기

박상건

빨리 빨리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잡혀서 술래가 되는 놀이  
술래잡기

빨리 빨리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못 잡아서 계속 술래로 남는 놀이  
술래잡기

## 5학년 글모음

### 수원화성과 정조의 업적

안소은

수원화성은 여러 과학기구를 이용해 만들었다고 한다. 수원화성을 만든 사람은 정조인데, 나는 정조가 슬플 것 같다. 정조는 자신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8일 만에 죽는 광경을 보았다. 아버지가 노론이 아닌 소론의 편인 이유로... 그것 때문에 정조는 어릴 적부터 집으로 자객이 들어오



고 해서 목숨의 위협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정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다. 정조 good!! 그리고 나서 수원화성을 짓기 시작하였다. 한양을 내버려두고 수원으로 옮긴 이유는 노론의 재산이 한양에 있기 때문이었다. 정조는 비밀리에 수원화성 프로젝트를 하였다. 돈을 내고 일할 사람을 구하고 여러 가지 과학기술도 동원해서. 하지만 정조는 죽었다. 나는 정조가 너무 억울할 것 같다.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위협을 받으며 살고 수원화성이 완성되기도 전에 죽었으니 말이다.

## 정조의 업적

김겨레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넣어죽이고 정조가 왕이 되고 정조가 수원화성을 다 지은 뒤 죽었다.) 사도세자를 영조가 죽이는 걸 정조가 보았다. 그리고 정조가 왕이 되었는데 1777년 정조 1년 때는 끊임없이 자객이 공격하고, 도둑도 들고 안 좋은 일이 끊임없이 생겼다. 그리고 수원화성으로 옮기려고 수원화성을 지었는데 정말 빨리 지었다. 그 이유는 여러 과학기구로 지었고, 강제로 시키지 않고 돈을 주어 일꾼을 고용하고 과학적인 설계와 치밀한 계획이 있었기에, 빨리 지을 수 있었다. 그리고 옮기려고 했는데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아버지가 뒤주에서 죽는 걸 어렸을 때 보고, 자객한테도 여러 번 공격당하고 안 좋은 일이 많았는데도 훌륭한 정치를 한 정조는 대단한 것 같다.

## 영조와 정조의 이야기

황능규

영조는 노론이 소론 쪽에 있는 사도세자를 죽이라고 해서 죽였다. 정조는 모든 신하들한테 자신이 사도세자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노론들은 자객한테 죽이라고 시켰지만 정조는 살아남고 탕평책을 실시하고, 규장각을 설치하고, 수도로 수원화성을 짓고 가려고 했는데 죽어버렸다. 정조는 노론들한테 위협을 받고 죽을 수도 있었는데 평정심과 침착하게 업적을 많이 남겼다.

그래서 정조는 정말 위대하고 대단하다. 정조가 계속 살아있다면 수원에 수도를 세웠을 것이다. 그러면 노론들이 집단 정면 돌파를 할 것이고 그래서 정조는 결국 죽을 것이다.

## 5학년이 만든 가치사전

### ‘자존감’ -김수겸

나를 생각하는 마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상대방을 공감하고 이해해주는 마음

### ‘공감’ -백주은

친구가 슬퍼하면 같이 슬퍼해 주는 것, 친구가 행복하면 같이 기뻐해주는 것

### ‘나 전달법’ -장세교

친구도 기쁘고 나도 기쁜 것

## 유치원 활동



그림작품



체험학습





# 악몽

박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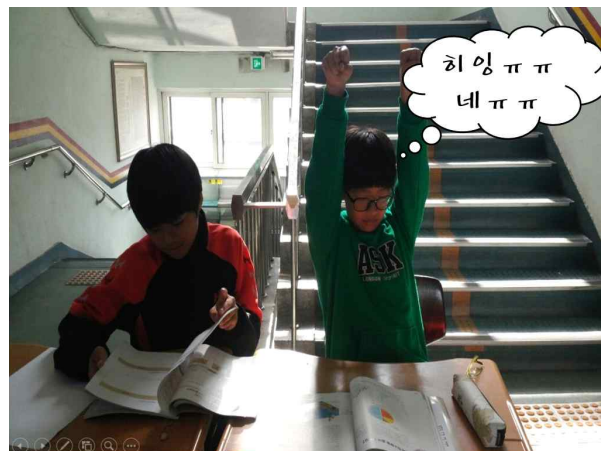


## 포토툰

6학년은 미술시간에 포토툰을 만들어 보았어요.

※포토툰은 이야기를 사진으로 찍어 만화처럼 말풍선이나 글을 넣어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바탕으로 한 만화겠지요.





## 아이 귀찮아~~~~

김민준







광 광 ~~~~~

